

7. 자율준수 감사

7.1 자율준수 감사의 내용

자율준수 감사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하나는 모니터링 혹은 핫라인 등으로 입수된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기존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해 둔 각종 가이드라인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컴플라이언스 기능 자체에 대한 감사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의 신호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일이 그렇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로 부터 수집한 감사를 통해 일이 어떻게 수행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듣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기회를 주는 것이다.

7.2 일반적인 감사와 자율준수 감사의 구별

감사의 핵심 기능은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행위, 회사에서 정한 업무 지침을 위반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행위 등을 적발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그리고 감사에 적발된 경우에 징계절차가 수반된다. 컴플라이언스 감사는 감사의 일종이긴 하지만, 범죄행위나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적발하고자 하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실패를 적발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감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움츠려 들게 되고, 매우 방어적인 입장이 된다. 자율준수감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드러낼 여지가 많다. 물론 규정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규정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시스템의 문제로 판단되면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그 직원이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목적이고, 자율준수 감사의 취지이다.